배드민턴 세계대회 3년간 전남에서 열린다

전남도, 대한배드민턴협회와 코리아오픈 월드투어 업무협약
2021년 여수·2022년 순천 개최
2023년 개최지는 협의 중

세계 배드민턴 최정상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는 '2021~2023 코리아오픈 월드투어 배드민턴 세계선수권대회'의 전남 개최 성공을 위해 전남도와 도체육회, 관련 협회 등이 힘을 모은다.

전남도는 지난 5일 전남도청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중수 대한배드민턴협회 부회장, 김재무 전남도체육회장, 김영섭 전남도배드민턴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전남 화순 출신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용대 선수와 현재 여자 세계랭킹 9위인 나주 출신 안세영 선수를 대회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적극적인 대회 홍보와 분위기 조성에도 나섰다.

코리아오픈 월드투어 배드민턴 선수권대회는 국내 최고 국제대회로 1991년부터 열리고 있다.

전남에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0개국, 350여명의 선수가 참가해 매년 6일간 대회를 치른다.

그동안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개최됐으나 지방에서는 전남에서 처음으로 3년 연속 대회를 유치했다.

전남도는 연도별 개최 후보지로 2021년 여수시, 2022년 순천시를 우선 선정하고 2023년 대회는 희망 도시 등과 협의 중이다.

대회 개최로 국내 팬들이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의 기량을 직접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체육회는 2002년 여수에서 코리아오픈 대회 개최 후 19년 만에 전남에서 개최되는 세계 메이저 대회 유치는 올해 신설된 전라남도체육회 스포츠마케팅팀의 역할이 컸다고 자평했다.

스포츠 마케팅팀은 지난 7월 대한배드민턴협회에 코리아오픈 월드투어 유치 신청을 했고 전남도, 전남배드민턴협회와 시설, 개최 조건 등에 대한 점검과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 9월에 개최된 대한배드민턴협회 이사회에서 전남 개최가 최종 확정됐다.

2021-2023 코리아오픈 월드투어 배드민턴 세계선수권대회 개최 업무협약식이 지난 5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용대와 안세영이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연합뉴스

김재무 전남도체육회장은 "전남지역 선수들과 생활 체육인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대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전남지역 정통 산악인 교육 요람인 광주전남등산학교가 오는 8일 영암군 일원에서 진행된다. 사진은 지난 1월 동계 등산학교 개교식.

광주전남등산학교 8~11일 영암서 산악훈련

코로나에 암벽 등반 전문교육만 실시

광주·전남지역 알피니스트의 산실인 광주전남등산학교가 하계 산악훈련에 나선다.

사단법인 광주전남등산학교(교장 서은호)는 8일부터 11일까지 3박 4일간 영암군 일원에서 '제42회 광주전남등산학교 정규반·암벽반'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등산학교는 해마다 월출산 산장 등지에서 이뤄졌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조치에 따라 월출산 인근 시설 등에 대한 대여가 불가능해 장소를 영암읍 개신리의 한 캠핑장으로 옮겨 진행된다.

입교생 또한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 방지에 따라 일반인이 아닌 기존 대학 산악 동아리 출신들로 꾸려지며 암벽 등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전문가 교육과정만 이뤄진다. 등산학교는 8일 오후 개교식과 함께 시작된다.

입교생들은 교육기간동안 암벽 등반에 대한 올바른 장비사용 방법, 슬랩등반법과 위치 확보법 등을 교육받는다.

또, 응급처치법과 독도법, 해외 원정 및 알피니즘의 역사교육 등으로 진행되며 11일에는 월출산 시루봉 암벽을 등반하는 종합 훈련을 끝으로 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광주전남등산학교 서은호(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 회장) 교장은 "매년 선·후배간의 교류의 장으로 우리 지역의 정통 산악인은 양성하는 하계 등산학교가 올해는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미뤄져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 기간 중 코로나 19 감염증 방역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교육생들의 훈련 중 안전사고 방지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시즌 3번째 메이저 여왕은?

LPGA 여자 PGA 챔피언십 내일 개막…박인비·박성현 등 출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세 번째 메이저대회인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총상금 430만 달러)이 8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뉴타운스퀘어의 애러니밍크 골프클럽(파72·6831야드)에서 막을 올린다.

한국 선수로는 박인비(32·세계랭킹 9위)와 박성현(27·세계 8위) 등이 선봉에 선다.

박인비는 2013~2015년 이 대회 3연패를 달성한 좋은 기억을 지녔다. 지난해에도 공동 7위로 선전했다.

박성현도 2018년 이 대회 우승을 차지하고 지난해엔 준우승, 2017년 공동 14위 등 세 차례 출전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다.

한국 선수 중 세계랭킹이 가장 높은 김세영(27·7위)도 아직 메이저대회에서는 우승이 없으나 언제든 정상 도전이 가능한 저력을 지녔다.

김세영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한동안 국내에 머물면서 이번 시즌 5개 대회밖에 출전하지 않았다.

이들 외에 전인지(26)와 지은희(34), 양희영(31), 박희영(33), 이미향(27)도 출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조코비치 "US오픈 실격패 안긴 부스타 잘 만났다"

프랑스오픈 8강서 재격돌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가 올해 자신에게 유일한 패배를 안긴 파블로 카레뇨 부스타(18위·스페인)와 프랑스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3800만유로) 8강에서 다시 만났다.

조코비치는 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스타드 롤랑가로스에서 열린 대회 9일째 남자 단식 4회전에서 카렌 하차노프(16위·러시아)를 3-0(6-4 6-3 6-3)으로 물리쳤다.

카레뇨 부스타 역시 이어 열린 경기에서 다니엘 알트마이어(186위·독일)를 3-0(6-2 7-5 6-2)으로 꺾고 8강에 합류했다.

이로써 조코비치와 카레뇨 부스타는 이번 대회 준준결승에서 맞붙게 됐다.

둘은 지난달 US오픈 16강에서도 만났는데 조코비치가 1세트 경기 도중 실격패를 당했다.

1세트 게임스코어 6-5로 카레뇨 부스타가 앞선 상황에서 조코비치가 신경질적으로 쳐 보낸 공이 선심의 목에 맞는 바람에 조코비치의 실격패가 선언됐다.

조코비치는 카레뇨 부스타를 상대로 맞대결 전적 3전 전승이었는데 이 실격패 때문에 3승 1패가 됐다.

또 이번 시즌 35승 1패를 기록 중인 조코비치의 유일한 패배 역시 이때 카레뇨 부스타와 경기에서 당한 실격패다.

조코비치는 US오픈 실격패 이후 로마 마스터스에서 우승했고, 이번 대회에서도 4회전까지 순항하는 등 최근 다시 9연승 중이다. 9연승 도중 상대에게 내준 세트는 로마 마스터스 8강에서 한 세트가 유일하다.

반면 카레뇨 부스타는 조코비치를 꺾고 US오픈 4강까지 올랐지만 4강에서 알렉산더 츠베레프(7위·독일)에게 2-3(6-3 6-2 3-6 4-6 3-6)으로 역전패했고, 로마 마스터스에서는 첫판에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을 만나 0-2(1-6 1-6)로 졌다.

이번 대회 남자 단식 8강 대진은 조코비치-카레뇨 부스타, 스테파노스 치치파스(6위·그리스)-안드레이 루블료프(12위·러시아), 도미니크 팀(3위·오스트리아)-디에고 슈와르츠만(14위·아르헨티나), 나달-야니크 시너(75위·이탈리아)의 대결로 열린다. /연합뉴스

'응씨배 나홀로 4강' 신진서 10개월 연속 바둑랭킹 1위

신진서 9단이 10개월 연속 한국 바둑 랭킹 1위를 지켰다.

신진서는 지난 5일 한국기원이 발표한 10월 랭킹에서 1만216점을 기록, 박정환(1만5점) 9단을 따돌리고 1위를 수성했다.

신진서는 지난 9월 제9회 응씨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에서 4강에 진출하는 등 5전 전승을 거뒀다.

그는 올해 49승 5패, 압도적인 승률 90.74%를 기록, 이창호 9단이 1988년 작성한 연간 최고 승률(75승 10패, 88.24%)에 도전하고 있다.

신진서에 이어 2위를 지킨 박정환은 제22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 국내선발전 등을 통해 5승 1패를 기록했다.

신민준·변상일·이동훈·강동윤 9단은 3개월 연속 순위 변동 없이 3~6위를 지켰다.

이영구 9단은 7위에 올랐고 김지석 9단은 8위, 안성준 8단 9위, 이지현 9단이 10위를 차지했다.

100위 이내에서는 농심신라면배 국내선발전에서 5승 1패를 기록한 베테랑 최명훈 9단이 랭킹점수 111점을 획득하며 29계단 오른 76위로 가장 큰 랭킹 변화를 보였다. 여자기사 중에서는 최정 9단이 4계단 내려앉은 31위를 기록했고, 오유진 7단은 90위에 자리했다. /연합뉴스

응씨배 8강전 대국하는 신진서 9단.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산책

LOTTE CINEMA | 충장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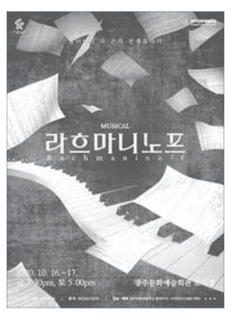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담보
2관	언힌지드
3관	국제수사
4관	국제수사
5관	담보, 디바
6관	담보
9관	그린랜드
7관 씨네커플	애프터: 그 후 죽지않는 인간들의 밤, 트롤킹
8관 씨네커플	밥정, 검객, 디바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전시
경계의 공간
2020. 9.1.(화) ~ 11.1.(일)
광주문예회관 갤러리

회관 개관29주년 기념 특별기획
백건우와 슈만
2020. 10. 20.(화) 19: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GAC기획공연 FOCUS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2020. 10.16.(금) 19:30, 17.(토) 17:0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